

간호대학생의 사회봉사활동 후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및 태도의 변화*

한영란** · 이홍자** · 주혜주** · 조경미** · 김은주** · 황승숙**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사회봉사, 자원봉사란 말은 라틴어의 Voluntas에서 유래하며 역사적으로 자기희생, 헌신과 봉사, 자선, 상부상조, 박애주의, 인도주의, 민주주의 등 철학적, 종교적 및 도덕적 개념들이 주요 동기가 되어 왔다. 사회봉사활동 혹은 자원봉사활동(volunteerism)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모든 자발적인 활동들을 말하며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사회봉사자 또는 자원봉사자(volunteer)라고 부른다. 미국의 사회사업 백과사전(1977)에 의하면 '사회봉사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 통제, 개선하는 일을 다루는 여러 조직 및 기관에서 보수없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향약, 계, 두레 등을 통해 함께 하는 공동체 생활을 중시하는 공동체적 생활을 해왔으나 산업사회의 도래 이후 이러한 미풍양속은 사라지고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 중앙일보가 실시한 전국 설문조사(1996)에 의하면 사회봉사활동의 경험이 없는 자가 전체 인구 중 78.2%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나라는 타 국가에 비해 공익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이유는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 후 가족중심 특히 부부 중심의 문화가 확산되어 공동체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무너졌고 사회봉사의 낭만적 측면만이 강조되어져 사회봉사 활동 시 다수가 중도탈락을 하게 되며 경제적이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사회봉사활동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측면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김통원, 1998).

한편 대학은 축적된 지식들을 전수하고 창조적인 답을 찾아내는 진리의 산실이며 사제간에 인격적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숙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육성해 내는 교육의 장 역할을 해왔다. 현대의 대학은 연구와 교수의 기능을 강조하여 전문적 지식의 전달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으나 인성교육에는 실패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과거 대학은 소수 엘리트만이 다닐 수 있는 소수 정예주의였으나 현대의 대학교육은 대중교육체제를 지나 보편고등교육체제로 변해 감을 인식할 때 과연 대학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새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모리타 야스오(1998) 교수는 대학은 과거 소수 엘리트 교육이었으나 현재는 대중화되었고 이러한 결과로 과거에 비해 학생의 수준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더 확대된 다양한 교육 및 교수법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 본 연구는 1998년 경인여자대학 연구비에 의해 진행되었음.

** 경인여자대학 간호과 교수

하였다.

교육개혁심의회(1987), 교육정책자문위원회(1992), 정범모 등(1993)은 21세기가 요구하는 건강한 한국인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공분야의 교육이외에도 인성교육을 포함한 통합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체계와 사회정의, 복지를 위한 의지를 가진 사람, 주체의식과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진 공동체적 의식의 소유자, 그리고 윤리의식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미래 사회에 적응하며 이를 주도할 건강한 한국인이다(대학사회봉사협의회 재인용, 1997).

이러한 다양한 사실들에 기초하여 볼 때 현대의 대학은 연구, 교수의 기능 이외에도 부족한 인성교육과 공동체 의식을 소유한 건강한 사회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성교육은 이론교육보다는 감명과 감동 그리고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더 잘 성취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행동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의 성공적인 예인 사회봉사활동은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분야로서의 학문과 실천적 사회봉사를 통합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1997).

1998년 말 현재 172개 대학의 총, 학장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를 중심으로 대학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회봉사활동의 움직임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현재 대학에서의 사회봉사활동은 교과목과 연계되어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데 1997년 말 현재 사회봉사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 및 전문대학은 총 94개교이고 설치 과목 수는 161개에 달한다. 교양선택, 교양 필수 또는 전공선택으로 개설된 사회봉사는 과목명도 다양하고 개설학기, 학점 및 대상 학년이 다양하다. 한편 이렇게 대학에서의 사회봉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점 역시 많이 부각되어지고 있다. 그 중에는 대학생들에게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사전 요구조사나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방식 때문에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과 사회봉사활동이 정말 인성이나 동기, 태도의 변화를 가져 오는지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간호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므로 간호대학생들은 대학과정동안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학습이 더욱 강조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봉사활동은 더욱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중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이 갖는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및 태도는 어떠하며 사회봉사활동을 한 후의 두 집단간의 제 변수에서의 변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사회봉사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간호대학생 중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이 갖는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및 태도는 어떠하며 사회봉사활동을 한 후의 두 집단간의 제 변수에서의 변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두 집단간의 동질성을 검증한다.
- 2) 사회봉사활동 참여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및 태도에 대해 파악한다.
- 3) 실험군에서 사회봉사활동 시행 전, 후의 제 변수의 변화를 파악한다.
- 4) 대조군에서 6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및 태도의 제 변수에서의 변화를 확인한다.
- 5)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및 태도의 차이에 대해 파악한다.
- 6) 사회봉사관련 변인과 대상자의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및 태도의 관계에 대해 파악한다.

3. 연구 가설

- 1) 사회봉사활동 전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및 태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 2) 실험군은 사회봉사활동 전과 후의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및 태도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대조군은 사회봉사활동전과 후의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및 태도 정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4) 사회봉사활동 시행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및 태도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용어 정의

1) 사회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이란 공공복지를 향한 가치이념임과 동시에 민주적 방식에 의한 자극적, 협동적, 실천적 노력이다. 이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의 조직체를 통하여 무보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안수향, 1992).

본 연구에서는 교양선택으로 개설된 사회봉사과목에 수강신청을 하여 6개월 동안 48시간 이상의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제시하는 기관으로 병원, 보건소 또는 사회복지관련 기관이다. 봉사시기는 매주 일정시기를 지속적으로 나가는 경우, 일회성 2-3일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방학중 집중적으로 봉사를 하는 경우 등 개인별로 다양하다.

2) 사회성

사회성은 인간이 타고난 사회적 본능이며,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서 이는 동일시(indentification), 감정이입(empathy), 협력(cooperation) 및 이타주의적 감정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J. F. Crandall (1975)에 의해 개발된 사회성 척도(SIS : Social Interest Scale)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3)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동기(Motivation)란 인간이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근원이며(한덕용, 1990),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촉진시키도록 고무하는 내적 상태(Steers & Porter, 1964; 한덕용, 1990)이다. 사회봉사에 대한 동기에는 이타주의적 동기와 이기주의적 동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두가지 동기는 사회봉사 활동에 상호보완적으로 영향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수향(1992)이 Missouri-Columbia University Students Reason Volunteering(1980)와

The Perceived Motivation and Students Participating in a University Student Volunteer Program (1980)을 변안한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4)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태도

태도라고 하는 개념은 개인이 어떤 사건, 물건이나 사람 등에 관해서 어떤 인식이나 감정내지 평가를 가지며 그것에 입각해 가지고 있는 반응의 준비 상태를 말한다(이재창 외, 1995). 개인의 인지, 감정, 행동 등이 일정하고도 확립적이며 연속적인 경향성을 가진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추정개념이다(정인석, 1988). 사회봉사에 대한 태도에는 이타주의적 태도와 이기주의적 태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태도는 사회봉사 활동에 상호보완적으로 영향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상진(1995)의 봉사에 대한 태도 척도와 안수향(1992)의 자원 봉사 경험척도를 기초로 연구팀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II. 문헌 고찰

1. 대학과 사회봉사

맨서(G. Manser)와 캐스(R. H. Cass)에 따르면 사회봉사활동은 개인 자신이 선택한 자원복지기관에서 활동하고 창조·실험하고 또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의 자유와 민주적 과정 속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며 공익의 어떤 요소를 증진 또는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활동이다. 또한 크래머(R. Kramer)에 따르면 사회봉사활동은 일련의 자의적 가치지향과 자발적인 민간조직체의 두 요소로 성립된다. 가치지향은 정책을 수립하는 일, 계획하고 대변하는 일 그리고 일, 관리, 공공모금,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시민참여와 같은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자발적 민간조직체는 자원활동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양참삼 재인용, 1997)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1995)는 사회봉사가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발성과 자주성 둘째, 공동체 번영을 위한 공익성과 이타성 셋째,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하는 자발적 행동에 의한 무보수성과 무급성 넷째, 사회봉사

의 생활화와 개척자적 사명 의식을 가진 지속성과 개척성이다(김통원 재인용, 1998).

사회봉사활동은 아동, 청소년, 노인과 장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봉사활동 영역은 크게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시민운동단체, 가정 및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를 위한 자원봉사영역으로 설명될 수 있다.

James A. Perkins(1967)에 의하면 대학은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고(연구기능), 지식을 전달하며(교육기능), 지식을 활용(공공봉사기능)하여 인류복지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대학이 특정한 사회구조로의 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위적인 대학관은 대학의 공공 봉사기능을 강조한다. 즉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인류복지증진과 사회정의실현을 위해 광범위하게 대학이 기능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경원대학교 사회봉사단, 1988). 이러한 흐름 하에서 연구, 교육과 봉사의 3대 덕목 중 과거 상대적으로 중시되지 않았던 봉사가 최근 대학에서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대학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을 조직, 관리하므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수의 학생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전공 교과목과 사회봉사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는 '행동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배움과 대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므로 가능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에 의한 학습은 교육과 학습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사회봉사교육은 하나의 교육철학이 될 수 있다. 즉 학생들이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의 모색,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배울 수 있게 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갖춘 예비 사회인으로 교양교육을 받게 되며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공동선, 사회정의, 올바른 연대감의 형성 등 바람직한 가치관을 키울 수 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에서 사회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의 중심이 되므로 대학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수 있다.

사회봉사 교육을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는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은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을 학교 교과과정에 통합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다. 즉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봉사활동을 배움의 일부로 보고 사회봉사를 학생들의 임의 활동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

라 학교가 크레스를 통해 보다 조직적 체계적으로 개입한다는 개념이다. 이 학습의 특성은 지역사회 봉사와 클래스 토의의 순환성에 있다. 즉 봉사실천 후 그 경험을 교실에서 토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봉사활동을 조정 개선하는 순환과정을 거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의 공립학교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클린턴 정부는 1990년 전국 지역사회봉사법을 개정하여 그 지원을 더욱 확대하였다(김유배, 1996)

대학생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첫째, 대학생이라는 존재가 사회적 능력자원을 형성하는 기본인자임을 깨닫게 하고 둘째, 자신의 활동이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짐작케 하는 활력소임을 깨닫게 하며 셋째는 실제적인 산학연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1997).

전국경험교육협회(National Society for Experimental Education)의 연구진은 사회봉사를 추진할 때 주의하여야 할 10개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Kupiec, 1993).

- 1)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위한 책임감 있고 진취적인 인물을 참여시킨다.
- 2) 자신들의 봉사경험을 비평할 수 있는 조직화된 기여를 부여한다.
- 3) 참여자에게 분명한 사회봉사와 학습목표를 구체화시켜야 한다.
- 4) 사회봉사 수혜자가 봉사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욕구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 5)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사회봉사 수혜자가 봉사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욕구를 갖도록 한다.
- 6)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서비스 욕구변화와 서비스 기술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의 기회를 제공한다.
- 7) 주관 조직은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프로그램을 수행하여야 한다.
- 8) 목표달성을 위해 훈련, 감독, 모니터링, 지원, 인정 및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 9)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하고 관계자 모두의 이해에 부합되어야 한다.
- 10) 가능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기획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학에서 교양선택, 교양필수 또는 전공선택으로 과목을 개설하여 사회봉사를 실천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있어 많은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공과 연계하기 보다는 독립 과목으로 개설하여 연계성이 적다는 것이 한가지 문제이다(이현정, 1996).

2. 사회성

인본주의 심리학과 사회심리학의 시조라고 일컫는 애들러(Alfred Adler)는 사회성을 인간이 타고난 '사회적 본능'이라 설명한다. 사회성의 본질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서 이는 동일시, 감정이입, 협력 그리고 이타주의 감정을 포함한다. 사회성은 두 사람이상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사회적 행동이 내재화된 것이며, 후천적으로 환경을 통한 경험에 의해 형성된 습관이나 사회적 행동의 근본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Saracho, 1987).

대학에 입학할 하게 되면서 대학생들은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새로운 대인관계에 직면하여 이에 적응하면서 사회적·정서적으로 성숙되어 간다. 이 시기는 특히 대인관계의 형성과정을 통하여 개인의 성격 및 인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전에 개인이 갖는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합하고 수행하는 자아정체감이 우선 필요하다(박정희, 1997).

Crandall(1975)에 의해 개발된 사회성의 척도는 가치관과 성격특성 두 영역을 측정하였다. 개인의 행동을 결정짓는 개인 내부의 심리적 특성으로 알려진 개념은 가치관·태도·동기·성격 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가치관이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 것으로 가변성과 지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행동 표준의 기능을 지닌 평가적, 추상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가치관은 인간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으로서, 정의가 다양하듯이 학자의 관점에 따라 그 분류가 다양하다. Spindler(1963)는 사회적 가치로서의 행동규범을 크게 전통적 가치관과 신생 가치관으로 나누었다. 전통적 가치관에는 절대적 도덕성(체면을 생각하고 검약, 금욕하는 생활태도), 입신양면성(성공을 조건으로 근면, 노력하는 생활태도), 개인주의(자기중심적 태도), 성취지향적(항상 활동하고 긴장 속에서 일만 하는 태도), 미래지향성(미래를 가장 중시하여 미래를 위해서 사는 태도)이 포함되며, 신생가치관에는 상대적인 도덕성(옳고 그른 것은 상대적이며 집단에서 용인하는 것이 바로 선이라

고 생각하는 태도), 타인에 대한 배려(타인의 배려에 수용적이며 자기행동은 항상 타인을 고려하는 태도), 사교성(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생활태도), 집단적 일치성(집단의 조화를 궁극적 목표로 삼는 생활태도)이 포함된다(권영숙, 1996).

한편 Newcomb(1985)은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동기, 충동들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그는 행동성향을 나타내는 원점을 충동에 두고 가치관이 최종단계로 형성된다는 극히 일방적인 관계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관·태도·동기간에는 어느 한 방향으로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다. 즉, 동기는 충동에 의해서 자극되지만, 가치관이나 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며, 태도 역시 동기와 가치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반면 양자에 영향을 주는 작용도 하게 된다. 가치관은 인지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개념이며, 태도·동기로 옮겨가면서 인지적 요소가 약화되는 반면 감정적, 혹은 정의적 요소가 강화된다(권영숙, 1996).

3.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및 태도

사회봉사활동은 친 사회적 행동의 하나로 타인에 대한 도움행위이다. 도움행위는 이타주의적 성향과 자기유익을 위해 동기화 된다. 그러므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동기는 이타적, 이기적 동기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다.

동기(Motivation)란 용어의 라틴어 어원은 움직이다(Movere)로서(Lwthans, 1989), 인간이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근원이 동기임을 알 수 있다(한덕웅, 1990). Gellerman은 동기란 일정한 목표를 지향하여 활동을 조종하고, 에너지의 일부를 이들 목표도달에 투입시키는 것이라고 했다(한덕웅, 1990). Vinacke는 동기란 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행동의 강도 및 방향의 변화를 결정하는 여러 조건으로 보았으며(정혜숙, 1984), 많은 현대의 심리학자들은 동기를 말할 때 행동을 시작하고, 방향짓고, 행동의 강도와 지속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다(Houston, 1985).

이와 같이 동기란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유발하도록 지시하고 유인하며 격려함으로써 행동을 촉진시키도록 자극하고 고무하는 내적 상태(Berelson and Steiner, 1964: 한덕웅, 1990)라고 할 수 있다. Steers

와 Porter(1976)는 동기에 관한 여러 정의들을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 동기가 가진 속성 및 측면을 “첫째 인간행동을 활성화하는 측면, 즉 도인 또는 각성촉발의 측면, 둘째 인간행동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목표를 지향하도록 통로화 시키는 측면, 셋째 인간행동을 지속 또는 계속시키는 측면 등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태도는 사회학, 심리학, 사회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개념의 하나로 쓰이며, 개인이 어떤 사건, 물건이나 사람 등에 관해서 어떤 인식이나 감정내지 평가를 가지며, 거기에 입각해서 가지고 있는 반응의 준비상태를 가리킨다. 태도는 선천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형성되는 반응의 내적인 준비상태이며, 일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관련되어 있는 주체-객체 관계인 자기대 他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가치나 호악(好惡)의 감정이 따르는 정동적(情動的)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어떤 사실이나 사물 또는 개인에 대한 인지나 신념을 의미하며, 특정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좋거나 싫거나 하는 감정을 의미한다. 또 우리의 신념이나 감정에 의해 취하는 행동을 의미한다(이재창외, 1995). 따라서 태도는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행위 경향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의견, 신념, 관념 등의 개념과도 다르며 이들의 개념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정인석, 1988)

인간의 행동에는 양면성이 있지만 그중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은 사회에서 수용되고 권장된다. 이러한 행동은 친 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며 친 사회적 행동의 대표적인 예는 도움행동(helping behavior)과 이타성(altruism)등을 들 수 있다. 도움행동은 행동 뒤에 돌아올 보상을 기대하고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보상은 상관없이 도와주는 행동이 있다.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고 도와주는 행동을 이타행동(altruistic behavior)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의를 살펴볼 때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과 태도는 도움 행동인 친 사회적 행동, 즉 사회봉사를 실천하도록 하는 주요 매개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타주의적 행동이론과, 이기주의적 또는 자아지향적 행동이론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이타주의적 행동

심리학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을 때, 이러한 행동을 포괄적으로 대

변할 수 있는 용어로 흔히 사용되는 반사회적 행동에 대치되는 개념을 이용하여 친 사회적(pro-social)행동이라는 용어를 만들게 되었다. 친 사회적 행동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유익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수행하는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도움의 행위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친 사회적 행동에서는 자발적 또는 의도적이라는 측면이 중요하게 취급되어 같은 도움의 행위라도 강요되거나 우연하게 일어나는 행동은 제외되게 된다. 친 사회적 행동의 주된 두 가지 유형으로 집단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이타주의를 들 수 있다. 협력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친 사회적 행동으로서, 구성원 모두가 행위자의 입장에서 어떤 형태이건 공동의 투입을 전제로 한다. 반면에 이타주의의 경우에서 도움을 주는 주체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타주의는 타인의 복지에 대한 비 이기적인 배려 또는 헌신으로서 자기 중심성에 상반되는, 즉 자기 자신의 복지를 위한 이기적 관심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타적 행동이란 타인의 복지 및 이익을 의도한, 외적 보상에 대한 기대에 의해 동기화 되지 않는 자발적 행동이라고 정의될 때에는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이타주의의 존재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그러나 일부 심리학자들이 죄의식, 긍정적인 자아상의 보존요구, 동정심에 의해 동기화된 행동을 이타주의라고 보는 반면에, 일부 학자들은 이들 행동이 기본적으로 쾌락주의적 본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Eisenberg, 1986).

역사적으로 볼 때 한 개인이 이타적 또는 비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개인의 성격 내지 성품의 한 부분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적 특성이 이타주의의 결정요인이라는 주장은 이미 1920년대 조사에 의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친 사회적 내지 이타적 행동을 예측하는 데에는 개인적 차이보다는 상황적 측면이 더 유용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Baron & Byrne, 1981).

Smith는 이타주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복합적 이유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이타주의는 오히려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 주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아가서 이타적 이유 때문에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오직 자기 희생적인 이유 때문

에 자원 봉사에 참여한다고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조휘일 재인용, 1990).

레벤과 루이(1983)는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타적 행동의 요인들을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는데 첫째는 행위자의 특성 및 행위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황으로 개인의 독특한 성격, 어린 시절의 사회화, 도움에 관련된 경험, 신체적 상태 또는 기분, 개인의 이념 또는 생활철학 등을 들고 있으며, 둘째는 환경적, 상황적 요인들로서 상황에 관련된 생태학적 요인들, 도움의 상황에 관련된 사람들과 책임성의 분산정도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상황적 요인이란 자원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자원봉사 행동이 일어나는 조직 또는 기관의 제반 조건 및 상황이 될 수 있다(조휘일 재인용, 1990).

2) 이기주의적(Egoistic) 또는 자아지향적(self-directed) 행동이론

자원봉사자의 동기는 크게 보아 타인중심적, 즉 이타적인 동기와 건전한 자기이익 동기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후자 즉 자기중심적, 이기적 동기는 심리학 분야에서 그 이론적 배경을 찾아 볼 수 있는 자아 지향적 동기와 결부될 수 있는 것으로서 나아가 조직행동론의 동기이론으로 연결된다.

조직행동론에서 다루는 동기는 주로 작업동기(work motivation)인데 이는 주로 일정한 조직에 소속되어 비교적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및 작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동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기는 물론 이타적 속성을 지닌 동기도 있겠으나, 주로 자아지향적 내지 자기이익 중심의 동기가 작용한다.

사실상 일정한 조직 및 기관에 소속되어 특정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원봉사의 상황에서 개인의 지속성 내지 참여강도라는 성과에 초점을 맞춘다면 조직 행동론적 접근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먼저 조직 행동론에서의 동기이론을 고찰해보고 자원봉사동기와의 관련성을 보고자 한다.

조직 행동론에서의 동기이론들은 여러 형태로 분류될 수 있는데, 히틀(M. Hitl)은 그의 저서인 “효과적인 경영”에서 세가지 분류체계 즉 개인 중심적, 조직 중심적 그리고 상호작용적 이론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개인 중심적 이론은 개인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세가지 측면 즉 관심 또는 흥미, 태도 그리고 욕구를

다루는 것이다. “첫째 흥미란 사람들이 즐기는 활동들, 사람들이 그들의 주위를 자진해서 기울일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 개인은 자신의 중점적인 관심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때에 내적으로 동기화된다는 것이다. 태도란 어떤 사건 또는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향을 의미한다. 욕구란 인간이 신체적 내지 심리적 욕구로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때에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욕구이론으로서 핵심적인 이론들은 다음과 같다.

매스로우(A.M. Maslow)의 욕구단계 이론에 의하면 인간 개개인 은 피라미트 형태와 같은 순서체계를 갖는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욕구의 충족이 행동을 동기화 시킨다는 것이다. 이들 욕구들과 자원봉사자의 욕구를 관련지어 볼 수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또는 지속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자원봉사자 개인이 충족하기 원하는 사회적 욕구, 자존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서 충족되리라고 여겨지는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욕구를 자원봉사자에게 적용하여 Francies는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Moore, 1983).

첫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단순한 일과에서 벗어나 특별한 일을 해보려는 경험의 욕구이다. 둘째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의무감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등이 사회적 책임감을 수행하게 하는 욕구이다. 셋째는 고독을 피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자 하는 사회적 접촉의 욕구이다. 넷째는 자신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자신이 자원봉사를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의도이다. 다섯째는 칭찬, 존경, 감사를 받고 싶다는 사회적 승인에 대한 욕구이다. 여섯째는 언젠가 자신도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미래의 보상에 대한 기대이다. 일곱 번째로 성취의 욕구이다. 과업에 대한 수행능력을 확인하거나 창의력을 만족시키고자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이다.

조직중심적 이론은 행동이 일어나는 환경, 즉 조직의 조건 내지 분위기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헬쯔버그의 두 요인 이론(Herzberg's Two Factor Theory)에서, 이를 동기위생이론(Motivation Hy-

giene Theory) 이라고 부르는데 “개인의 일은 인간의 두 가지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하나는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이며, 다른 하나는 심리적인 성장과 만족의 욕구라는 것이다. 전자를 위생요인이라고 하는데 조직의 정책 및 행정, 기술적인 지도 감독, 대인관계, 보상, 사생활, 작업조건 그리고 지위 등이다(조희일 재인용, 1990). 이러한 요인들은 그 자체가 동기유발 요인은 되지 않으나 이들이 결여되면 일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동기적 요인들은 도전적인 일, 증가하는 책임, 성장과 발달, 성취, 목표달성 및 결과에 대한 인정 등이다. 이는 성과의 개선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업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이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 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자원봉사 상황에서는 만족도가 참여, 지속 그리고 적극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에서 본 개인중심적 이론과 조직중심적 이론은 각기 동기적 영향의 단일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반면에 상호작용적 이론은 이들 양 측면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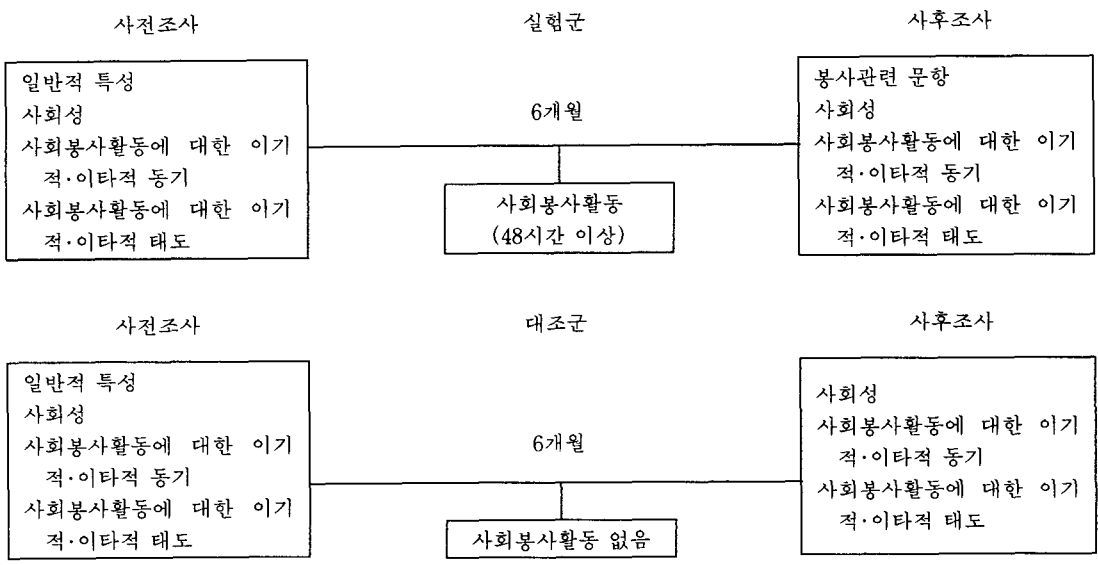
본 연구는 유사실험연구이다. 실험군은 사회봉사활동을 학점화하여 교양선택으로 실시하는 인천지역의 일 대학 간호과 1학년 학생이며 대조군은 교과목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시행하지 않는 서울, 경인지역의 대학 중 4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봉사활동 전과 후의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동기 및 태도변화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설계는 다음과 같다(그림 1).

2. 연구 대상

‘사회봉사활동’ 교과목이 교양선택 2학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인천지역의 1개 대학 간호과 1학년 학생을 실험군으로 하였다. 대조군은 서울, 경인지역에 위치하였으며 사회봉사활동이 학점화 되지 않은 4개 대학 간호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였다.

사전조사는 사회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1998년 3월에 실시하였고 실험군에는 179명이 참여하였으며 대조군에는 211명이 참여하였다. 사후조사는 6개월이 지나 48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이 진행된 후인 10월에 실시되었고 실험군에 164명, 대조군에 160명이



<그림 1>

참여하였다.

3. 연구 도구

사전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12문항, 사회성에 대한 24문항,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15문항과 태도 21문항 등 7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사후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을 제외하고 봉사과 관련된 문항 14문항을 삽입하여 6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사회성의 측정 도구

J. F. Crandall(1975)에 의해 개발된 사회성 척도(SIS : Social Interest Scale)를 조 휘일(1990)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4문항이며 영역별로 가치관과 개인의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문항은 완충제 역할을 하여 최저 0점에서 최고 15점의 점수분포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조 휘일(1990)의 연구에서 Spearman Brown reliability Coefficient로 측정한 결과 .67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로 측정한 결과는 .96이었다.

2)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측정도구

안수향(1992)이 Missouri-Columbia University Students Reason Voluntering(1980)과 The Perceived Motivation and Students Participating in a University Student Volunteer Program(1980)을 번안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15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이 문항 중에는 이타적 동기를 측정한 문항이 6문항이었고 이기적 동기를 측정한 문항이 9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를 2점, '보통이다'를 3점, '그렇다'를 4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동기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로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는 .85이었다.

3)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

최상진(1995)의 사회봉사에 대한 태도 척도와 안수향(1992)의 사회봉사경험 척도를 기초로 연구팀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최상진(1995)의 사회

봉사에 대한 태도척도는 초, 중학교 도덕 교과서와 관련 연구자료를 종합한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이타적 태도를 측정하였으며 안수향(1992)의 사회봉사경험 척도는 The Perceived Motivation and Students Participating in a University Student Volunteer Program(1980)을 기초로 형성한 도구로 이기적 태도와 이타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연구팀이 만든 도구의 총 문항은 21문항으로 이타적 태도에 대한 11문항과 이기적 태도에 관한 10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를 2점, '보통이다'를 3점, '그렇다'를 4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태도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로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는 .88이었다.

4)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의 사전조사는 사회봉사활동이 학점화되어 있는 대학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간호과 신입생 179명과 사회봉사활동을 정규 교과목으로 하지 않는 서울, 경인 지역 대학의 간호과 1학년 211명을 대상으로 1998년 3월에 실시되었다.

실험군에 시행되어진 사회봉사활동은 학교와 협약되어진 사회봉사기관이나 병원, 보건소 등지에서 진행되었으며, 각 학생들은 학생 자신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공강시간, 주말), 6개월 동안 48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시행하였다. 학생들은 사회봉사활동 이후 봉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담당교수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대조군에서 사전조사는 실험군과 같은 기간에 실시하였다.

사후조사는 실험군은 사회봉사활동을 진행한 후인 10월에 실시하였으며 164명이 설문에 응해 주었다. 대조군의 사후조사 역시 6개월 이후 같은 기간에 실시되었으며 160명이 설문에 응해주었다.

5) 자료분석 방법

SPSS window 9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에 적용된 기법은 도수분포의 산출 및 빈도분석, t-test, paired t-test, ANOVA 및 Pearson correlation 등이다.

1)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paired t-test 와 ANOVA로 확인하였다.

2) 사회봉사활동 전 사회봉사활동을 계획한 실험군 (이후 실험군이라 함)과 사회봉사활동을 계획하지

않은 대조군(이후 대조군이라 함) 간에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및 태도정도에 차이는 t-test로 확인하였다.

- 3) 실험군의 사회봉사활동 전과 후의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및 태도 정도에 차이는 paired t-test로 확인하였다.
- 4) 대조군의 실험전과 후의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및 태도 정도에 차이는 paired t-test로 확인하였다.
- 5) 사회봉사활동 시행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및 태도 변화에 차이는 t-test로 확인하였다.
- 6) 사회봉사 관련요인과 사회봉사활동 후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및 태도와의 관계는 ANOVA와 t-test로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증

연구대상자는 실험군 179명, 대조군 211명으로 총 390명이었다. 먼저 실험군의 특성을 보면, 종교는 기독교인 대상자가 76명(42.7%)으로 가장 많았고, 무교가 66명(37.1%) 천주교가 25명(14%)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족의 형태에서는 핵가족이 160명(89.4%)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101~200만원"이 93명(52.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1~100만원"이 38명(21.2%), "201만원이상"이 33명(18.4%)으로 나타났다. 학과선택동기를 보면, "스스로 원해서"가 110명(61.5%)으로 가장 많았고, "주위 사람의 권유"가 53명(29.6%), "성적에 맞추어서"가 16명(8.9%)으로 나타났다. 전공학과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가 72명(40.2%)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가 54명(30.2%), "매우 만족한다"가 28명(15.6%)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가입 및 종류를 보면,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은 대상자가 76명(42.5%)로 가장 많았고, "봉사동아리"가 62명(34.6%), "종교동아리"가 26명(14.5%)으로 나타났다. 사회봉사참여경험이 없는 경우가 72명(40.2%)으로 나타났다.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가 107명(59.7%)으로 나타났고,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기회가 없어서"가 52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시간이 없어서"가 10명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실험군	대조군	
	(N=179)	(N=211)	
	실수(%)	실수(%)	
연 령	만 18세 이하	88(49.2)	99(46.9)
	19세	63(35.2)	51(24.2)
	20세	25(15.6)	53(28.9)
종 교	기독교	76(42.7)	78(37.5)
	천주교	25(14.0)	25(12.0)
	불 교	11(6.2)	20(9.6)
	무 교	66(37.1)	83(39.9)
	기 타		2(1.0)
가족형태	대가족	19(10.6)	36(17.1)
	핵가족	160(89.4)	169(80.1)
	기 타		6(2.8)
경제수준	50만원 이하	7(3.9)	17(8.1)
	51~100만원	38(21.2)	41(19.4)
	101~200만원	93(52.0)	83(39.3)
	201만원 이상	33(18.4)	41(19.4)
학과선택 동기	스스로 원해서	110(61.5)	112(53.1)
	주위사람의 권유	53(29.6)	71(33.6)
	성적에 맞추어	16(8.9)	14(6.6)
	기 타		13(6.2)
전공학과 만족도	매우 불만족	10(5.6)	13(6.2)
	불만족	15(8.4)	24(11.4)
	보 통	54(30.2)	78(37.0)
	만 족	72(40.2)	76(36.0)
	매우 만족	28(15.6)	20(9.5)
동아리 가입 및 종류	무	76(42.5)	115(54.5)
	종교동아리	26(14.5)	23(10.9)
	어학 및 학습	2(1.1)	17(8.1)
	봉사동아리	62(34.6)	22(10.4)
	취미 및 여가	9(5.0)	29(13.7)
	기 타	3(2.3)	5(2.8)
봉사 참여 경험	없음	72(40.2)	92(43.6)
	사회복지시설	31(17.3)	55(26.1)
	사회단체	23(12.8)	30(14.2)
	공공기관	22(12.3)	11(5.2)
	기 타	31(17.3)	22(10.4)
봉사참여 못한 이유	있음	99(56.6)	109(51.7)
	시간이 없음	10(5.7)	13(6.2)
	기회가 없음	52(29.7)	71(33.6)
	관심이 없음	8(4.6)	7(3.3)
	무엇인지 몰랐음	3(1.7)	7(3.3)
	원하지 않았음	3(1.7)	4(1.9)
봉사에 대한 강연이나 교육	없음	36(20.1)	175(82.9)
	학교에서 있음	134(74.9)	20(9.5)
	사회복지 단체	11(5.2)	1(0.5)
	기 타		11(5.2)

〈표 1〉 계속

특 성 구 분		실험군	대조군
		(N=179)	(N=211)
		실수(%)	실수(%)
학교의 봉사교육의 영향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6(3.2)	2(0.9)
	영향을 주지 않는다.	15(8.4)	18(8.5)
	그저 그렇다.	69(38.5)	66(31.3)
	영향을 준다.	76(42.5)	91(43.1)
	매우 영향을 준다.	11(6.1)	15(7.1)
봉사정신에 영향을 준 요인은	가정교육	43(11.0)	60(20.3)
	학교교육	94(24.0)	72(24.4)
	언론보도	32(8.2)	24(8.1)
	교회교육	19(4.8)	35(11.9)
	기타종교단체	18(4.6)	14(4.7)
	좋은 친구	27(6.9)	28(9.5)
	각종서적	6(1.5)	9(3.1)
	참여하고 있는 사회 단체활동	18(4.6)	20(6.8)
	지도교수 및 교수	9(2.3)	5(1.7)
	내가 남에게 도움을 받았던 경험	11(2.8)	25(8.5)
기 타	4(1.0)	3(1.0)	
계		179(100)	211(100)

(5.7%), “관심이 없어서”가 8명(4.6%)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봉사교육의 영향은 “영향을 준다”가 76명(42.5%)으로 가장 높았고, “그저 그렇다”가 69명(38.5%),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15명(8.4%), “매우 영향을 준다”가 11명(6.1%)으로 나타났다. 사회봉사에 대한 강연이나 교육은 “학교에서 있음”이 134명(74.9%)으로 나타났다. 사회 봉사 정신에 영향을 준 요인은 학교교육이 94명(24%)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교육이 43명(11%), 언론 보도가 32명(8.2%) 순으로 나타났다(표 1).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종교는 무교가 83명(39.9%), 기독교가 78명(37.5%), 천주교가 25명(12.0%), 불교가 20명(9.6%)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족의 형태에서는 핵가족이 169명(80.1%)를 나타냈고, 경제수준은 101~200만원이 83명(39.3%), 51~100만원 및 201만원 이상이 각각 41명(19.4%)를 나타냈다. 학과 선택동기를 보면, “스스로 원해서”가 112명(53.1%)으로 가장 많았고, “주위의 권유”가 71명(33.6%), “성적에 맞추어”가 14명(6.6%)으로 나타났다. 전공학과 만족도를 보면, “보통이다”라고 응답

한 경우가 78명(37.0%), “만족한다”가 76명(36.0%), “불만족하다”가 24명(11.4%)이었다. 동아리 가입 및 종류를 보면, 동아리 가입하지 않는 대상자가 115명(54.5%)로 가장 많았고, 취미 및 여가가 29명(13.7%)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봉사 참여경험이 없는 경우가 92명(43.6%)으로 나타났다. 사회봉사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가 109명(51.7%)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55명(26.1%), 사회단체에서 30명(14.2%), 공공기관에서 11명(12.3%)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봉사에 참여 못한 이유는 “기회가 없어서”가 71명(33.6%)으로 가장 많았고, “시간이 없어서”가 13명(6.2%), “관심이 없음” 및 “무엇인지 모름”이 각각 7명(3.3%)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봉사교육의 영향은 “영향을 준다”가 91명(43.1%)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가 66명(31.3%), “영향을 주지 않는다” 18명(8.5%), “매우 영향을 준다” 15명(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봉사에 대한 강연이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이 175명(82.9%)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두 집단 모두 스스로 간호과를 선택해서 오는 비율이 높았고 40%가 이전에 봉사 참여 경험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기회가 없어서(33.6%)가 가장 많았다. 또한 봉사정신에 영향을 준 요인은 학교교육(24%), 가정교육(11%), 언론보도(8.2%)로 나타나 사회봉사에서 학교교육의 영향력이 가장 큼을 알 수 있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paired t-test와 ANOVA를 한 결과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경제수준($t = -2.612, p = .009$), 전공학과만족도($t = 1.994, p = .047$), 봉사에 대한 강연이나 교육($t = 8.008, p = .000$), 봉사정신에 영향을 준 요인($t = -3.80, p = .000$)의 항목이었다. 경제수준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51-100만원, 101-200만원 인 학생수가 많았고 전공학과 만족도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만족, 매우 만족인 학생 수가 많았다.

2. 가설 검증

제 1 가설 : 사회봉사활동전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및 태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사회성은 실험군 평균이 7.05점, 대조군 평균이 7.49점으로 대조군이 실험군 보다 평균이 높았다. 사회봉

사회활동에 대한 이기적 동기는 실험군 평균이 31.1점, 대조군 평균이 32.0점이고, 이타적 동기는 실험군 평균이 20.88점, 대조군 평균이 21.78점으로 대조군의 평균이 높았다. 사회봉사에 대한 이기적 태도는 실험군 평균이 36.41점, 대조군 37.27점으로, 이타적 태도는 실험군 평균이 40.90점, 대조군 평균이 41.58점으로 대조군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회봉사 시행전 사회성, 이기적, 이타적 동기 및 태도에 대해 t-test를 시행한 결과 사회성과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중 이타적 동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2). 그러므로 제 1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제 2 가설 : “실험군은 사회봉사활동 전과 후의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이기적·이타적 동기 및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사회봉사활동 전과 후의 실험군의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이기적·이타적 동기 및 태도를 확인한 결과, 사회성은 사회봉사활동 전의 평균이 7.05점, 사회봉사활동 후의 평균이 7.24점으로 사회봉사를 시행한 후 사회성의 평균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이기적 동기는 사회봉사활동 전 평균이 31.29점, 사회봉사활동 후 평균이 33.29점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2.404, p = .017$). 또한 이타적 동기는 사회봉사활동 전 평균이 21.00점, 사회봉사활동 후 평균이 23.10점으로 이타적 동기의 변화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t = -2.751, p = .007$).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이기적 태도에서 사회봉사활동 전 평균이 36.32점, 사회봉사활동 후 평균이 36.15점으로 사회봉사활동 후 평균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아니었다. 또한 이타적 태도는 사회봉사활동 전 평균이 40.97점, 사회봉사활동 후 평균이 41.30점으로 사회봉사활동 후 평균이 상승되었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3).

실험군은 사회봉사활동 전과 후의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이기적, 이타적 동기 및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제 2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제 3가설 : “대조군은 사회봉사활동 전과 후의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이기적, 이타적 동기 및 태도 점수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사회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대조군의 전과 후의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이기적·이타적 동기 및

〈표 2〉 사회봉사활동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회성, 이기적·이타적 동기 및 태도차이

	실험군 (N=179) mean(S,D)	대조군 (N=211) mean(S,D)	T	P
사회성	7.05(1.78)	7.49(1.92)	-2.253	.025*
이기적 동기	31.1(4.49)	32.0(4.49)	-1.719	.086
이타적 동기	20.88(2.97)	21.78(3.97)	-2.509	.013*
이기적 태도	36.41(5.90)	37.27(5.04)	-1.563	.119
이타적 태도	40.90(5.06)	41.58(4.75)	-1.373	.171

*P<.05

〈표 3〉 사회봉사활동 전, 후 실험군의 사회성, 이기적·이타적 동기 및 태도변화

	실험전 (N=179) mean(S,D)	실험후 (N=160) mean(S,D)	T	P
사회성	7.05(1.78)	7.24(1.81)	-.862	.390
동기				
이기적 동기	31.29(4.50)	33.39(10.22)	-2.404	.017*
이타적 동기	21.00(2.90)	23.10(9.60)	-2.751	.007**
태도				
이기적 태도	36.32(5.94)	36.15(8.16)	.215	.830
이타적 태도	40.97(5.02)	41.30(7.36)	-.487	.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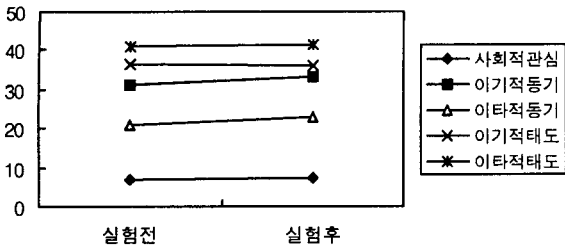
*P<.05, **P<.01

태도를 확인한 결과, 사회성은 실험 전의 평균이 7.33점, 실험 후의 평균이 7.35점으로 6개월이라는 시간 이후의 사회성은 낮은 변화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이기적 동기는 실험 전 평균이 32.37점, 6개월 후 평균이 32.72점으로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타적 동기는 실험 전 평균이 22.29점, 사회봉사활동 후 평균이 23.16점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서 이기적 태도는 실험 전 평균이 37.99점, 사회봉사활동 후 평균이 37.06점으로 평균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아니었으며, 이타적 태도는 실험 전 평균이 42.33점, 실험 후 평균이 40.68점으로 6개월이라는 기간 이후 이타적 태도에 관한 점수는 감소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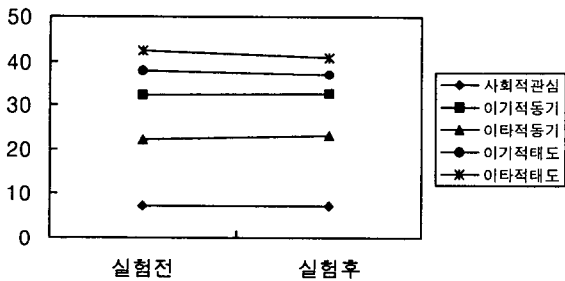
그러므로, 사회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대조군은 사회봉사활동 전과 후의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이기적, 이타적 동기 및 태도 점수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4〉 사회봉사활동 전과 후 대조군의 사회성, 이기적·이타적 동기 및 태도변화

	전(N=211) Mean(S.D)	후(N=160) Mean(S.D)	T	P
사회성	7.33(1.74)	7.35(1.96)	-.094	.925
동기 이기적 동기	32.38(5.76)	32.72(11.69)	-.369	.713
이타적 동기	22.29(4.11)	23.17(8.56)	-1.232	.220
태도 이기적 태도	37.99(4.74)	37.06(9.50)	1.078	.283
이타적 태도	42.33(4.56)	40.69(5.61)	2.694	.008**

** P<.01



가설 4: “사회봉사활동 후 실험군과 대조군은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및 태도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한 실험군과 사회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대조군의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및 태도 변화에 관한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한 6개월 이후에 대상자들의 사회성은 평균 점수의 변화는 있었으나 이러한 차이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봉사에 대한 이기적 동기와 이타적 동기는 사회봉사활동 이후 실험군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었으며, 대조군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나 이러한 변

화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봉사 활동전 사회성과 이타적 동기는 5% 유의수준에서 대조군이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사회봉사활동 후 대조군의 점수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실험군이 사회봉사 후 사회성과 이타적 동기가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주목할 것은 이타적 태도의 변화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에 더욱 유의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타적 태도의 변화는 실험군에서는 긍정적으로 변화한 반면, 대조군에서는 오히려 6개월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사회봉사활동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사회봉사활동 후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및 태도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4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안수향(1992)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의 사회성이 봉사를 하지 않은 사람의 사회성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이 사회봉사활동에 의한 효과인지를 알 수 없다고 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본 연구 결과는 사회봉사활동이 사회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구 결과 여대생의 경우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시작 동기가 이타적인 경우보다 이기적인 동기가 더 우세함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와도 일치되고 있다.

3. 추가 분석

1) 사회봉사활동 전, 후 실험군, 대조군에서의 이타적·이기적 동기문항 비교와 검정

(1) 사회봉사활동 전 실험군, 대조군의 이타적·이기적 동기문항 비교

다음 표의 내용들은 5점 척도로 측정한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에 관한 각 문항들의 평균을 비교한 것이다(표 6). 이타적 동기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원한다.’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변화를 줄 수 있다면 그를 알기를 원한다.’ ‘자원봉사활동은 나의 인생에서 남을 돕는 기술과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도울 것이다.’ 등의 문항들에서 실험군, 대조군에서 모두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어 두 집단 모두에서 사회적 책임감이 높게 나타났다.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종교적 신념이 자원봉사를 하도록 동기를 준다’로 실험군 평균 2.62, 대조군 2.92였다. 안수향(1992)의 연구에서도 종교가 사회봉사활동

<표 5>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회성, 이기적·이타적 동기 및 태도 차이비교

		실험전	실험후	차이	T	P
		평균(SD)	평균(SD)	평균(SD)		
사회성	실험군	7.05(1.78)	7.24(1.81)	0.19(2.67)	.514	.608
	대조군	7.33(1.74)	7.35(1.96)	0.02(2.72)		
이기적 동기	실험군	31.29(4.50)	33.39(10.22)	2.09(11.17)	1.36	.176
	대조군	32.38(5.76)	32.72(11.69)	0.35(11.99)		
이타적 동기	실험군	21.00(2.90)	23.10(9.60)	2.10(9.76)	1.17	.242
	대조군	22.29(4.11)	23.17(8.56)	0.87(8.98)		
이기적 태도	실험군	36.32(5.94)	36.15(8.16)	-.17(10.17)	.648	.517
	대조군	37.99(4.74)	37.06(9.50)	-.93(10.92)		
이타적 태도	실험군	40.97(5.02)	41.30(7.36)	0.34(8.82)	2.15	.032*
	대조군	42.33(4.56)	40.69(5.61)	-1.64(7.71)		

*P<.05

<표 6> 사회봉사활동 전, 후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이타적·이기적 동기의 문항 비교

	실험군 (전N=179) 후N=164 mean(S,D)	대조군 (N=211) 후N=160 mean(S,D)
이타적 동기		
나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데 의무가 있다고 느낀다.	3.11(0.74) 3.12(0.75)	3.45(0.94) 3.48(1.40)
자원봉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나를 고맙게 여길 것이다.	3.58(0.73) 3.95(1.97)	3.73(0.80) 3.81(1.37)
나의 종교적인 신념이 자원봉사를 하도록 동기를 준다.	2.62(1.19) 3.48(2.25)	2.92(1.27) 3.63(3.68)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원한다.	3.88(0.78) 4.12(1.94)	3.87(0.86) 4.08(2.09)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변화를 줄수 있다면 그를 알기를 원한다.	3.84(0.85) 4.24(1.93)	3.97(1.04) 4.10(1.56)
자원봉사활동은 나의 인생에서 남을 돕는 기술과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도울 것이다.	3.85(0.82) 4.20(1.92)	3.85(0.82) 4.05(1.47)
이기적 동기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기를 원한다.	4.03(0.76) 3.88(0.70)	4.16(0.79) 3.99(1.30)
자원봉사활동은 미래의 직업이나 경력을 잘 수행하도록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3.95(0.85) 3.74(0.84)	4.07(1.11) 3.94(1.33)
나는 대학과 관계없는 다른 활동에 중사하기를 원한다.	2.83(1.06) 3.01(1.06)	2.96(1.21) 3.31(1.63)
나의 이력(서)이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3.55(0.95) 3.41(0.90)	3.55(0.97) 3.56(1.46)

	실험군 (전N=179) 후N=164 mean(S,D)	대조군 (N=211) 후N=160 mean(S,D)
이기적 동기		
나는 자원봉사활동이 전공을 결정하도록 동기를 원한다.	3.22(1.05) 3.76(2.11)	3.21(1.08) 3.42(1.68)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신념과 생활양식을 접하게 될 것이다.	3.63(0.77) 3.98(2.07)	3.79(2.26) 3.91(1.48)
나는 자원봉사활동이 직업선택을 결정하도록 돕기 바란다.	3.22(1.00) 3.81(2.07)	3.41(2.26) 3.43(1.63)
자원봉사는 나의 명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 좋게 생각할 것이다.	2.77(0.95) 3.63(2.14)	3.08(1.00) 3.29(1.67)
나는 구체적인 경험을 위해 나의 학문적인 활동과 관계되는 봉사 기회를 원한다.	3.89(0.87) 4.15(1.96)	3.78(0.89) 3.87(1.54)

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이기적 동기로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기를 원한다' '자원봉사활동은 미래의 직업이나 경력을 잘 수행하도록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구체적인 경험을 위해 나의 학문적인 활동과 관계되는 봉사 기회를 원한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신념과 생활양식을 접하게 될 것이다.'라는 문항에서 실험군, 대조군 모두에서 사회적 접촉과 경험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점수가 낮은 항목은 '대학과 관계없는 다른 활동에 중사하기를 원한다'(실험군 2.83/대조군 2.96)와 '자원봉사는 나의 명성을 증가시킬 것이다'(실험군 77/대조군 3.08)로 나타났다.

(2) 사회봉사활동 후 실험군, 대조군의 이타적·이기적 동기 문항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회봉사활동 후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이기적, 이타적 동기를 5점 척도로 측정된 평균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사회봉사활동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이타적·이기적 동기의 각 문항들의 평균을 확인한 결과 이타적 동기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변화를 줄 수 있다면 그를 알기를 원하다’라는 문항이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자원봉사활동은 나의 인생에서 남을 돕는 기술과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도울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한다’ 라는 문항에서 각각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이기적 동기에서는 ‘나는 구체적인 경험을 위해 나의 학문적인 활동과 관계되는 봉사 기회를 원한다.’라는 항목이 실험군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었으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신념과 생활양식을 접하게 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항목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어 실험전과 같게 사회적 접촉 및 경험의 욕구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봉사활동 전과 후의 실험군, 대조군에서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이타적·이기적 동기 문항 점정

사회봉사활동 전, 후의 실험군과 대조군에서의 각 문항별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이타적 동기에서는 여섯문항 중 사회봉사 전후의 변화

〈표 7〉 실험군, 대조군에서의 사회봉사활동 전·후 이타적·이기적 동기 문항별 차이 검정

이 타 적 동 기	실험군	대조군	T	P
	전후차이 mean(S,D)	전후차이 mean(S,D)		
나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데 의무가 있다고 느낀다.	-1.20(1.08)	-5.60(1.67)	.28	.773
자원봉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나를 고맙게 여길 것이다.	.35(2.08)	.37(1.42)	1.59	.112
나의 종교적인 신념이 자원봉사를 하도록 동기를 준다.	.38(2.30)	.75(1.79)	1.34	.181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원한다.	.22(2.07)	.43(1.61)	.52	.601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변화를 줄 수 있다면 그를 알기를 원한다.	.36(1.97)	.93(2.25)	1.31	.193
자원봉사활동은 나의 인생에서 남을 돕는 기술과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도울 것이다.	.32(2.08)	.10(1.61)	1.07	.284
이 기 적 동 기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기를 원한다.	-.18(.96)	-.22(1.39)	.28	.778
자원봉사활동은 미래의 직업이나 경력을 잘 수행하도록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23(1.26)	-.20(1.63)	-.195	.845
나는 대학과 관계없는 다른 활동에 종사하기를 원한다.	.13(1.52)	.38(1.97)	-1.23	.219
나의 이력(서)이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15(1.36)	-3.1(1.6)	-.73	.467
나는 자원봉사활동이 전공을 결정하도록 돕기를 원한다.	.51(2.27)	.14(1.99)	1.58	.115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신념과 생활양식을 접하게 될 것이다.	.32(2.23)	.44(1.61)	1.32	.189
나는 자원봉사활동이 직업선택을 결정하도록 돕기 바란다.	.58(2.24)	.12(1.86)	2.01	.045*
자원봉사는 나의 명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 좋게 생각할 것이다.	.85(2.42)	.18(1.80)	2.82	.005**
나는 구체적인 경험을 위해 나의 학문적인 활동과 관계되는 봉사 기회를 원한다.	.26(2.18)	-.50(1.69)	1.41	.160

* P<.05, ** P<.01

에서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항은 없었으며, 이기적 동기에서는 ‘나는 자원봉사활동이 직업선택을 결정하도록 돕기 바란다’라는 성취욕구의 항목과 ‘자원봉사는 나의 명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 좋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사회적 인정을 나타내는 항목이 실험군에서 사회봉사활동 후에 현저하게 평균점수가 상승하였으며, 대조군인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나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데 의무가 있다고 느낀다’, ‘자원봉사활동은 미래의 직업이나 경력을 잘 수행하도록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는 사회적 책임, 성취 동기 항목들은 실험전보다 실험 후 측정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2) 사회봉사활동 전, 후 실험군, 대조군에서의 이타적·이기적 태도문항 비교와 점정

(1) 사회봉사활동 전 실험군, 대조군의 이타적·이기적 태도문항 비교

사회봉사활동전 이에 대한 태도의 각 문항들의 평균을 비교한 표는 (표 8)과 같다. 이타적 봉사태도에 대한 문항 중 ‘길이나 지하철 내에서 걸인을 보면 도와주어야 한다.’ ‘불우한 이웃을 위해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도와야 한다.’ ‘길을 갈 때 짐을 가득 싣고 가는 손수레를 보면 도와주어야 한다.’ 등의 항목이 실험군, 대조군 모두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었고 가장 낮은 항목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이웃에 살고 있으면 방문하여 위로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가 실험군이 2.89, 대조군이 3.03으로 낮았다. 이기적 봉사동기의 문항으로는 ‘자원봉사는 나에게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의 성격과 배경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자원봉사는 나에게 실행에 의해 배우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등의 문항에서 실험군, 대조군 모두에서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었다(표 8). 이는 두 집단 모두에서 경험의 욕구와 사회적 접촉의 욕구가 높은 것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자원봉사는 나에게 특별한 직업기술을 얻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이다

(2) 사회봉사활동 후 실험군, 대조군의 이타적·이기적 태도 문항 비교

사회봉사활동 후 사회봉사에 대한 이타적, 이기적 태도의 문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8)과 같

<표 8> 사회봉사활동 전, 후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이타적·이기적 태도의 문항 비교

	실험군 (전N=179) 후N=164 mean(S.D)	대조군 (N=211) 후N=160 mean(S.D)
이타적 태도		
길을 갈 짐을 가득 싣고 가는 손수레를 보면 도와 주어야 한다.	4.03(0.60)	4.04(0.64)
나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도 불우 이웃을 위한 모금운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3.21(0.88)	3.27(0.83)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무서운 짐을 들고가는 할머니를 보면 도와 주어야 한다.	3.64(0.78)	3.66(0.85)
길을 갈 활동이 불편한사람(휠체어를 탄 사람)을 보면 도와 주어야 한다.	4.10(0.25)	3.96(0.83)
길을 갈 활동이 불편한사람(휠체어를 탄 사람)을 보면 도와 주어야 한다.	3.82(0.86)	3.93(0.84)
길이나 지하철 내에서 걸인을 보면 도와 주어야 한다.	4.16(1.23)	3.93(0.83)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이 이웃에 살고 있으면 방문하여 위로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4.13(0.73)	4.10(0.76)
부모님이 시키는 일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도와 드려야 한다.	3.06(0.99)	3.00(1.51)
불우한 이웃을 위해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도와야 한다.	2.89(0.99)	3.03(0.93)
불우한 이웃을 위해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도와야 한다.	3.77(1.30)	3.66(0.84)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없더라도 힘든 일이나, 굳은일에 앞장서야 한다.	3.75(0.73)	3.83(0.80)
나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증가할 것이다.	4.28(1.20)	3.97(0.86)
나를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이다.	4.06(0.93)	4.07(0.94)
자원봉사는 나에게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3.66(0.71)	3.73(0.81)
자원봉사는 나에게 실행에 의해 배우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3.73(0.84)	3.79(0.76)
자원봉사는 나에게 직업분야를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3.48(0.75)	3.57(0.85)
자원봉사는 나에게 전반적인 일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3.46(0.88)	3.64(0.77)
자원봉사는 나에게 특별한 직업기술을 얻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3.61(1.01)	3.61(1.01)
나를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이다.	3.97(0.85)	3.99(0.78)
나를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이다.	4.16(1.23)	3.93(0.83)
이기적 태도		
자원봉사는 나에게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3.77(0.74)	3.84(0.74)
자원봉사는 나에게 실행에 의해 배우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3.60(0.84)	3.90(2.41)
자원봉사는 나에게 직업분야를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3.84(0.65)	3.92(0.70)
자원봉사는 나에게 전반적인 일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3.65(0.87)	3.73(0.92)
자원봉사는 나에게 특별한 직업기술을 얻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3.63(0.86)	3.66(0.79)
나를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이다.	3.57(0.94)	3.60(1.04)
나를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이다.	3.75(0.76)	3.76(0.70)
나를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이다.	3.73(0.84)	3.76(0.98)
나를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이다.	3.05(0.96)	3.21(0.87)
나를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이다.	3.08(1.03)	3.50(3.25)
나를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이다.	3.37(0.85)	3.64(0.75)
나를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이다.	3.57(1.29)	3.54(0.98)

〈표 8〉 계속

	실험군 (전N=179) 후N=164) mean(S.D)	대조군 (N=211) 후N=160) mean(S.D)
나는 지역사회에 관해 유용성의 감각을 획득할 것이다.	3.70(3.12) 3.54(1.30)	3.74(0.89) 3.92(4.18)
자원봉사는 나의 자아 확신을 증 가시킬 것이다.	3.73(0.88) 3.74(1.35)	3.75(0.78) 3.64(0.98)
자원봉사는 나에게 다양한 유형 의 사람들의 성격과 배경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4.08(0.85) 4.07(1.23)	4.07(0.83) 3.90(0.87)
나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보다 나은 인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48(0.82) 3.58(1.27)	3.67(0.70) 3.58(0.94)

다. 실험군에서 사회봉사활동 후 이타적 태도 문항 중 '부모님이 시키는 일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도와드려야 한다'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나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길을 갈 때 활동이 불편한 사람(휠체어를 탄 사람)을 보면 도와주어야 한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를 보면 도와주어야 한다'는 항목의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군에서는 실험군에 비해 다소 낮은 점수이지만 같은 네 항목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기적인 태도 문항 중에서는 '자원봉사는 나에게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의 성격과 배경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의 항목이 가장 높았으며, '자원봉사는 나에게 전반적인 일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자원봉사는 나의 자아확신을 증가시킬 것이다'는 항목에서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었다.

대조군에서는 '자원봉사는 나에게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의 성격과 배경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나는 지역사회에 관해 유용성의 감각을 획득할 것이다' '자원봉사는 나에게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에서 높은 평균을 보여서 사회봉사전과 같이 경험의 욕구, 사회적 접촉의 욕구 및 성취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봉사활동 전과 후의 실험군, 대조군에서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이타적·이기적 태도 문항 검증

사회봉사활동의 실시 전, 후 학생들의 사회봉사에 대한 태도의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타적 태도의 변화를 보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를 보면 도와주

어야 한다'라는 항목과 '부모님이 시키는 일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도와드려야 한다'라는 항목에서 대조군은 평균 점수가 감소한 반면 실험군에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이다.

이기적인 태도의 변화를 보면, '나는 지역사회 조직들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와 '나는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보다 나은 인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문항에서 실험군에서는 전후에 평균점수가 상승하였으나 대조군에서는 오히려 점수가 감소하였으므로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문제 및 조직에 대한 이해가 증가됨을 입증하는 좋은 결과이다(표 9).

3) 사회봉사활동 후 봉사관련 요인과 사회성, 이타적·이기적 동기 및 태도

사회봉사활동 후 사회봉사 관련 요인과 사회성, 이타적·이기적 동기 및 태도와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회봉사의 실시분야에 따라 봉사 후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의 차이가 있었다(표 10). 특히 아동복지와 의료복지에서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 역시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에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사회봉사 활동이 진행되어지는 기간과 관련하여 볼 때 사회봉사활동 후 사회성은 유의수준 5%에서, 이타적, 이기적 동기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개월 미만의 지속적인 진행에서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일회성이나 일주일 미만의 봉사 활동에서는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를 졸업한 후에 사회봉사에 계속 참여 할 것이냐는 물음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집단에서 이타적 봉사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34, p=.001$).

한편 조휘일(1990)의 연구에 의하면 봉사 지속도와 동기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험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단기간의 사회봉사활동 기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회적 책임욕구와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봉사기간을 길게 가지는 것도 좋다고 제언하고 있다.

한영란 등(1998)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전 연구에 의하면 사회봉사활동 후 사회성과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이기적·이타적 동기 및 태도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사회성과 오직 이기적 태도와만 낮은 상관관계($r=.211$)를 보였다. 또한 이타적 태도와 이기적·이타적 동기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97, r=.455$).

〈표 9〉 실험군, 대조군에서의 사회봉사활동 전·후 이타적·이기적 태도별 문항별 차이 검정

이 타 적 태 도	실험군 mean(S.D)	대조군 mean(S.D)	T	P
길을 갈 때 짐을가득 싣고 가는 손수레를 보면 도와 주어야 한다.	-5.52(.78)	-9.40(.87)	.43	.669
나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도 불우이웃을 위한 모금운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15(1.22)	.18(1.21)	.94	.347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무서운 짐을 들고가는 할머니를 보면 도와 주어야 한다.	.24(1.52)	-.63(1.25)	1.97	.050*
길을 갈 때 활동이 불편한 사람(휠체어를 탄 사람)을 보면도와 주어야 한다.	1.22(1.45)	-.20(1.24)	1.41	.160
길이나 지하철 내에서 걸인을 보면 도와 주어야 한다.	9.78(1.82)	-3.82(1.36)	.75	.453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이웃에 살고 있으면 방문하여 위로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1.22(1.51)	-.25(1.23)	1.70	.089
부모님이 시키는 일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도와 드려야 한다.	.23(1.45)	-.19(1.30)	2.68	.008**
불우한 이웃을 위해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도와야 한다.	-9.12(1.06)	-.10(1.15)	.07	.945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없더라도 힘든 일이나, 낯은일에 앞장서야 한다.	-.17(1.10)	-.17(1.22)	.03	.974
나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증가할 것이다.	6.70(1.47)	-.18(1.23)	1.65	.101
나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이다.	.00(1.48)	-.18(1.32)	1.12	.264
이 기 적 태 도				
자원봉사는 나에게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17(1.17)	-3.10(2.60)	-.65	.515
자원봉사는 나에게 실행에 의해 배우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0(1.06)	-.26(1.12)	.46	.650
자원봉사는 나에게 직업분야를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4.92(1.27)	-.13(1.29)	.58	.563
자원봉사는 나에게 전반적인 일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6.13(1.09)	-3.12(1.27)	.19	.848
자원봉사는 나에게 특별한 직업기술을 얻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3.05(1.36)	.18(3.40)	-.53	.599
나는 지역사회 조직들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1(1.60)	-.19(1.17)	2.60	.010*
나는 지역사회에 관해 유용성의 감각을 획득할 것이다.	-.15(3.58)	8.75(4.25)	-.55	.583
자원봉사는 나의 자아 확신을 증가시킬 것이다.	2.44(1.67)	-.14(1.32)	1.005	.316
자원봉사는 나에게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의 성격과 배경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3.65(1.40)	-.21(1.19)	1.71	.087
나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보다 나은 인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2(1.49)	-.19(1.12)	2.09	.037*

*P<.05, **P<.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대학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회봉사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과 학생 중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이 갖는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및 태도는 어떠하며 사회봉사활동을 한 후의 두 집단간의 제 변수에서의 변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유사실험연구로서 사회봉사활동이 과목

으로 개설되어 학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인천지역의 1개 대학 간호과 1학년 학생 179명을 실험군으로 하였으며 서울, 경기지역에 있는 사회봉사활동이 과목으로 개설되지 않은 4개 대학의 간호과 1학년 211명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사전조사는 사회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1998년 3월에 실시하였고, 사후조사는 6개월간의 사회봉사활동이 진행된 후인 10월에 실시하였다.

연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 1 가설 : 사회봉사활동전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및 태도에 차

〈표 10〉 사회봉사 관련 요인과 봉사 후 사회성, 이타적·이기적 동기 및 태도와의 관계

특	성	사회성	봉사 동기		봉사 태도	
			이타적	이기적	이타적	이기적
실시분야	이동복지	8.2	82.8	37.2	48.3	30.8
	청소년 복지	7.5	65.0	30.0	37.0	34.0
	노인복지	7.3	65.4	28.9	38.4	33.6
	장애인 복지	7.5	66.1	31.0	39.7	35.3
	종합복지	7.1	63.8	29.1	42.5	32.9
	의료복지	7.0	74.2	33.4	41.4	37.1
	기 타	8.1	78.3	40.6	42.5	39.3
T or F (P-value)		.99(.441)	2.17(.039*)	2.15(.039*)	1.46(.184)	1.44(.193)
봉사동기	자 의	7.02	33.0	22.6	42.4	36.5
	타 의	7.34	32.7	22.8	39.5	36.0
	기 타	6.72	31.2	21.3	44.5	36.2
T or F (P-value)		2.65(.051)	1.95(.124)	2.75(.044*)	2.73(.046*)	.15(.931)
사회봉사 활동의 지속성	일회성	7.43	19.9	29.9	38.9	33.3
	일주일 미만	6.52	24.6	33.9	42.4	36.9
지속성	지속성(3개월미만)	7.53	25.3	35.4	41.0	36.9
	지속성(3개월이상)	7.26	19.9	30.7	40.4	35.9
	기 타	6.40	20.4	31.7	46.3	36.6
T or F (P-value)		2.96(.014*)	3.94(.002)*	3.30(.007)**	1.79(.117)	.66(.651)
졸업후 사회봉사 참여 의사	절대 없다	7.50	16.0	29.5	36.0	33.0
참여 의사	없 다	7.42	24.4	35.1	39.1	32.8
	잘모르겠다	7.15	22.9	32.9	39.5	35.3
	있 다	7.19	22.7	32.9	43.1	37.6
	적극적으로 하겠다.	7.33	16.0	31.3	54.0	40.0
T or F (P-value)		.798(.553)	2.53(.031*)	1.98(.085)	4.34(.001***)	1.25(.290)

*P<.05 **P<.01 ***P<.001

이가 없을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회봉사활동 시행전 사회성, 이기적·이타적 동기 및 태도에 대해 t-test를 시행한 결과, 사회성($t = -2.253, p = .025$)과 사회봉사활동의 동기 중 이타적 동기($t = -2.509, p = .01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제 1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 2) 제 2 가설: “실험군은 사회봉사활동 전과 후의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이기적·이타적 동기 및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실험군에서 사회봉사활동 전과 후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이기적 동기($t = -2.404, p = .017$) 및 이타적 동기($t = -2.751, p = .00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제 2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 3) 제 3가설: “대조군은 사회봉사활동 전과 후의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이기적, 이타적 동기 및 태도 점수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대조군에 있어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이타적 태도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 = 2.694, p = .008$). 그러므로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 4) 가설 4. “사회봉사활동 후 실험군과 대조군은 사회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및 태도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타적 태도의 변화($t = 2.15, p = .03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한 것이 확인되어 가설 4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 5) 사회봉사활동 전 실험군, 대조군의 이타적·이기적 동기 및 태도 문항 비교
이타적 동기에서 실험군, 대조군 두 집단 모두에

서 사회적 책임감이 높게 나타났다.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종교적 신념이 자원봉사를 하도록 동기를 준다'였다.

또한 이기적 동기로는 실험군, 대조군 모두에서 사회적 접촉과 경험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수가 낮은 항목은 '대학과 관계없는 다른 활동에 종사하기를 원한다', '자원봉사는 나의 명성을 증가시킬 것이다'로 나타났다.

6) 사회봉사활동 후 실험군, 대조군의 이기적·이타적 동기 및 태도 문항 비교

이기적 동기에서 사회적 접촉 및 경험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사회봉사활동 전과 후의 실험군, 대조군에서 이타적·이기적 동기의 문항을 검정한 결과 사회봉사활동 후 이기적 동기에서 성취욕구($t=2.01, p=.045$)와 사회적 인정($t=2.82, p=.005$)을 나타내는 항목이 실험군에서 현저하게 평균점수가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8) 사회봉사활동 전과 후의 실험군, 대조군에서 이타적·이기적 태도의 문항을 검정한 결과 실험군에서 이타적 태도의 평균점수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68, p=.008$). 또한 이기적 태도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지역사회문제 및 조직에 대한 인식의 증가가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t=2.60, p=.010$).

이러한 연구결과 사회봉사활동은 사회성과 이타적 태도를 증진시킬 뿐 만 아니라 이기적 태도 중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봉사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는 유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자원봉사자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가 이타적인 동기와 함께 사회적 접촉, 성취욕구 및 경험의 욕구 등 다양한 이기적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봉사활동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이러한 대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간호학 전공과 관련된 봉사프로그램을 잘 구성하면 전공 만족도와 함께 이타적 및 이기적 동기와 태도를 함양시킬 수 있다.
2. 사회봉사활동을 함으로서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

기가 더욱 부여되었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함께 사회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학의 경우 사회봉사활동은 인성교육의 측면과 사회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유익한 교육경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권고한다.

3. 실험집단을 1개 대학에 국한하였으며 사회봉사활동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요인 즉, 개인특성, 사회적 영향 및 조직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충한 추후 연구가 지속되었으면 한다.
4. 타 연구결과에서도 제시된 것처럼 사회봉사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회가 없고 몰라서인 경우가 많았고 학교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므로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 많은 수의 학생이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경원대학교 사회봉사단 (1998). 대학사회봉사활동의 이념과 방법. 경원대학교 사회봉사단, 19-22.

권영숙 (1996). 대학생의 자아실현수준과 가치관과의 관계.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13.

교육개혁심의회 (1987). 10대 개혁교육. 교육개혁심의회.

교육정책자문위원회 (1992). 21세기 한국교육의 선택.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김영호 (1979). 한국에 있어서의 volunteer활동의 육성방안과 조직화과정. 강남대학교 출판부

김유배 (1996). 대학과 사회봉사; 미국 대학의 사회봉사 사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54-62.

김통원 (1998). 사회봉사론. 성균관 대학교 출판부. 11-13. 39-43.

모리타 야스오, 오오츠키 히로시, 배종무 역 (1998). 실천적 대학 교수법. 계백, 45-47.

박정희 (1997). 여대생의 장의존 및 장독립적 인지양식과 사회성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찬욱 (1994). 청소년의 봉사에 대한 태도와 실천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박홍 (1997). 대학교육과 사회봉사; 대학에서의 실천적 인성교육.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1-5.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1995). 자원봉사자 교육 교재.
- 안수향 (1992). 한국 대학생 자원봉사의 동기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산업학과 석사학위논문.
- 양참삼 (1997). 대학의 사회봉사: 사회봉사의 철학과 기능. 한양대 출판부. 12-18.
- 이선주 (1996). 대학생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인식 및 태도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재창 외 5인 (1995). 인간이해를 위한 심리학. 문음사.
- 이현청 (1996). 대학과 사회봉사; 한국 대학의 사회봉사사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64-71.
- 정범모의 (1993). 교육의 본연을 찾아서; 입시와 입시교육의 개혁. 나남.
- 정인석 (1988). 신 청년 심리학. 대왕사.
- 정혜숙 (1984). 동기부여 이론의 현대적 전개. 동아대 석사학위 논문.
- 조휘일 (1990). 한국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 행동과 관련된 개인 및 조직 특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 주성수 (1997). 대학의 사회봉사: 배경, 현황 및 전망. 한양대 출판원.
- 중앙일보사 (1996. 6. 27). 자원봉사특집 전국 설문조사.
- 최상진 (1995). 교회 중·고등학생과 일반 중·고등학생의 사회봉사 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6). 대학과 사회봉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1997). 대학봉사.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1997). 대학교육과 사회봉사: 인성과 사회봉사.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180-181.
- 한덕웅 (1990). 조직행동의 동기이론. 법문사.
- 한영란 외 (1998).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관심,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및 태도연구. 간호과학, 제10권 2호, 96-113.
- Baron, R. A. and Byrne, D. (1981). Social Psychology. Boston Allyn and Bacon Inc.
- Crandall, J. F. (1981). Theory and measurement of social interest. Columbia University Press.
- Eisenberg, N. (1986). Altruistic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Hills date, N. J. Lawrence Elbum Associates Pub.
- Encyclopedia of Social Work. Vol 2. (1977).
- Fazio, R. H., & Zanna, M. P. (1981). Diect experience and attitude behavior consistency. In L. Berkowits(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4., New York: Academic Press.
- Hatch, S. ed. (1983). Volunteers, Pattern, meaning and Motives. Back hamasted, England, The Volunteer Center.
- Houston, J. P. (1985). Motivation.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Kupiec, T. Y. ed (1993). Rethinking tradition: integrating service with academic study on college Campuses. Providence Compact.
- Lwthans, F. (1989). Organizational behavior. 5th ed. Mcgraw-Hill Company
- Michael Hitl (1979). Effective management. St Paul : Minessota: West Publishing Co.
- Moore, L. F. (1985). Motivation Volunteers. The Vanconver Centers Publication.
- Newcomb, T. M, Turner, R. H., & Converse, P. E. (1965). Social Psyc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Saracho, O. N. (1987). Cognitive style characteristics related to young children's play behavior.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9, 165.
- Spindler, G. D. (1963). Education In Transforming America Culture.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Steer, R. M. and Porter L. W. (1979). Motivation and Work Behavior. New York McGraw Hill Company.

– Abstract –

A Study on the Changing in Social Interest, Motivation and Attitud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o Voluntary Activity after a Voluntary Program

Han, Young Ran · Lee, Hong Ja**
*Joo, Hye Joo** · Cho, Kyung Mee***
*Kim, Yeun Ju** · Hwang, Seoung Sook***

This study attempted to compare the social interest, motivation, and attitud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a voluntary program and the students who didn't participate in a voluntary program. The purpose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o find the effect of a voluntary program and to offer fundamental data for institutionalizing a voluntary program in college.

The subjects were composed of two groups, one group attend the voluntary program and the other group doesn't. The subjects were 390 nursing students : 179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11 in the control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Before voluntary activities, the mean value of the control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the

experimental group in social interest and altruistic motivation. The difference is statistically meaningful($t = -2.253$, $p = .25$, $t = -2.509$, $p = .013$).

2. After voluntary activities, selfish motivation and altruistic motivation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higher than before. The difference is statistically meaningful($t = 2.404$, $p = .017$, $t = -2.751$, $p = .007$).
3. The social interest, selfish motivation, altruistic motivation toward voluntary activities and selfish attitude, altruistic attitude toward voluntary activities will not have changed in the control group before or after voluntary program. However, the altruistic attitude lowered after voluntary activity. It is statistically meaningful($t = 2.694$, $p = .008$).
4. After the voluntary activitie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in altruistic attitude.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mean value of altruistic attitude increased significantly, but in the control group the mean value of altruistic attitude decreased($t = 2.15$, $p = .032$).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voluntary activities not only increase social interest and altruistic attitude, but also the subject's understanding toward the commun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in Woman's College.

**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Kyungin Wonan's College.

3. The social interest, selfish motivation, altruistic motivation toward voluntary activities and selfish attitude, altruistic attitude toward voluntary activities will not have changed in the control group before or after voluntary program. However, the altruistic attitude lowered after voluntary activity. It is statistically meaningful ($t=2.694$, $p=.008$).
4. After the voluntary activitie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in altruistic attitude.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mean value of altruistic attitude increased significantly, but in the control group the mean value of altruistic attitude decreased ($t=2.15$, $p=.032$).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voluntary activities not only increase social interest and altruistic attitude, but also the subject's understanding toward the community.